

# 소비자를 생각하며 양계산물 생산해야

- 자력으로 마련한 매뉴얼로 인증획득 -



농가에서 어렵거나 혹은 귀찮을 거라 생각하는 인증 제도를 컨설팅 업체의 도움 없이 자체 사양관리 프로그램만으로 두 가지나 획득한 농장이 있어 찾아 보았다. 친환경과 HACCP 인증에 빛나는 농장, 청려원(대표 김영석)이다.

‘푸르고 수려한 동산’이라는 뜻의 청려원은 그 이름만큼이나 빼어난 자연경관과 깨끗하게 정돈된 사육환경을 자랑하고 있었다.

청려원은 HACCP 인증을 받은 기존의 다른 농장과 달리 자력으로 마련한 매뉴얼로 첫 심사에서 인증을 취득(2009년 2월 16일)하는 쾌거를 이뤘다.

HACCP 인증을 준비하기 전부터 이미 자체 매뉴얼을 두고 관리, 운영하고 있었기에 외부 업체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데다, 추가로 설치한 시설 등도 대부분 버려지는 자재를 재활용하여 소액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게 된 계기를 묻자, “노동적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실제 사양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단순명료한 답이 돌아왔다.

## 고품질 표준화를 꾀한다

‘건강하고 깨끗한 닭 생산’이라는 기치 하에 고품질 표준화를 꾀하며, 여러 차례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한 김 대표의 농장경영 중점 사항을 살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기본 중의 기본 ‘공



▲ 자력으로 HACCP 인증을 획득한 김영석 사장

기'와 '물'이었다.

청려원은 현재 터널식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환기구 앞에는 천을 여러 장 겹쳐 만든 엄청난 크기의 먼지필터가 병풍처럼 둘러 세워져 있다. 이는 환기구로 오염물질이 역류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과 함께 미세한 분진 등이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병아리들을 위한 것이면서, 이웃을 배려한 장치이기도 하다.

물 역시도 평범한 물은 아니다. 지하 100m에서 끌어올리는 암반수를 음수로 공급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려원은 무창 직립 케이지 12만수, 무창 평사 7천 수 규모로 올인-올아웃(All In-All Out)의 3회전 생산으로 연간 약 38만 수를 사전 예약제에 의하여 생산하고 있다. 이중 생산 275일(3회), 휴식 90일(3회)을 지켜, 출하 이후부터 입추까지 계군 간 충분한 간격을 두어 연속 입추로 인한 소모성 질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건강한 중추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김 대표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실험을 준비 중이다. 나머지 한 동에 기존의 터널

식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크로스식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공기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붕에 환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그것이다.

## 행복한 동물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한 중추를 생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김 대표가 꼽는 것은 병아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성장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닭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자란 중추가 성계가 되어서도 질병 발생이 적고 건강한 계란을 낳을 수 있다.

양계 뿐 아니라 이미 여러 축종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클래식 음악 들려주기는 '행복한 동물' 만들기의 좋은 예이다.

## 전문 백신팀 운영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이 더뎠거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닭도 마찬가지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 크로스식 환기휀설치(좌), 철저한 기록 관리(중), HACCP 인증 및 무항생제 인증서(우)

백신 접종 시에도 이는 적용된다. 자신들을 위한 주사바늘이라고 한들 어디 닭들이 알아주겠느냐 말이다.

그래서 청려원에서는 8명으로 구성된 전문 백신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팀은 어느 백신팀 처럼 빠르게 주사하려 하지 않는다. 진행 속도는 더디 돼 병아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 마리 한 마리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해 나간다. 또한 다른 농장에는 일절 출입하지 않고, 오로지 이곳의 중추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다.

### 자체 생산 이력제 시행

이렇게 꼼꼼한 사양관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신뢰를 더하는 시스템이 있다. 산란계 농장으로 중추를 양도할 때에 친환경 보증서와 함께 백신프로그램사육일지와 체중측정기록표, 품질보증서, 혈청·병리보고서를 함께 인계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생산이력제와 다름없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추를 구입하는 산란계농장의 믿음과 만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농장에서 이

곳의 중추를 입식할 경우에는 별도의 준비기간 없이 친환경 계란(무항생제 계란)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도 새로운 계란을 입식할 때에는 친환경 인증 중추가 아니면 준비기간 150일을 거쳐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동시에 해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철저한 관리가 중추장에서만 이뤄지면 반쪽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을 지키는데 병아리 상태가 좋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종계장을 선별하여, 지금은 한 곳에서만 꾸준히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이웃 농가와 공유하여 종계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언제든지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신선한 계란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어느 농장에서든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닭을 키운다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양계산업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지와 당부를 함께 내비쳤다.

취재 | 이경현 기자  
i727i@naver.com

